

Issue Briefing

20130822 vol.113

중국 강소성과의 교류 20주년, ‘맞춤형 관광 전략’ 필요하다!

1. 중국 강소성 관광객 유치 필요하다!
2. 전라북도 관광에 대한 강소성 전문가 의견조사
3. 강소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향 설정
4. 강소성 관광객 유치를 위한 5대 추진과제

연구진

김형오 (문화관광연구부 연구위원)
eventkim2000@hanmail.net

양지인 (문화관광연구부 연구원)
sunshine@jthink.kr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Issue Briefing

C O N T E N T S

중국 강소성과의 교류 20주년, ‘맞춤형 관광 전략’ 필요하다!



- 1. 중국 강소성 관광객 유치 필요하다
 - 1) 중국인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 4
 - 2) 지자체별 중국과의 교류의 중요성 확대 4
- 2. 전라북도 관광에 대한 강소성 전문가 의견조사
 - 1) 강소성 소재 여행사 관계자 의견조사 결과 6
 - 2) 강소성 관광 전문가 인터뷰 조사 결과 7
 - 3) 시사점 8
- 3. 강소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향 설정
 - 1) 홍보 마케팅 강화 9
 - 2) 대표 관광상품 개발 9
 - 3) 관광교류 확대 9
- 4. 강소성 관광객 유치를 위한 5대 추진과제
 - 1)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강화 10
 - 2) 태권도 관광상품 개발 11
 - 3) 미식 투어 상품 개발 12
 - 4) 청소년 수학여행단 유치 13
 - 5) 전라북도·강소성 교류 20주년 기념행사 추진 14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3년 8월 22일 vol.113 발행처: 전북발전연구원 발행인: 김경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쭈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강소성과의 교류 20주년, ‘맞춤형 관광 전략’ 필요하다.

최근 중국은 개방정책의 확대와 빠른 경제성장 그리고 고급화된 소비성향으로 인해 출국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다. WTO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인의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는 2011년 7,025만명에 이르고 2020년에는 약 1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을 방문한 중국관광객도 2005년 71만 명에서 2009년 134만 명, 2012년에는 283만 명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방문 중국관광객은 전체 외래관광객의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방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자매결연 도시를 중심으로 각종 교류 행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추세로 전라북도는 자매결연을 맺은 강소성을 매개로 대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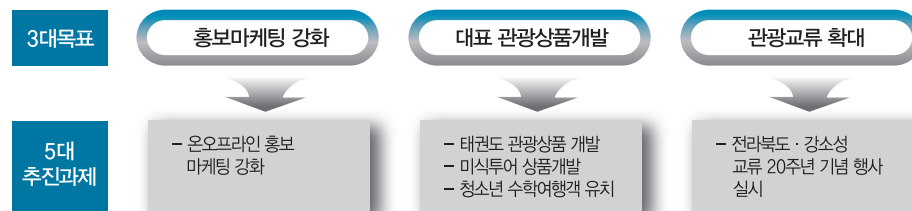
전라북도와 강소성은 1994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정치, 경제, 문화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며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은 전라북도·강소성 간 교류 2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 보다 적극적인 관광교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강소성 시민들을 전라북도로 유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 강소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라북도 3대 목표 및 5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소성 내 전라북도 인지도 개선과 차별화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주요사업으로는 ‘온라인 홍보마케팅 전개’, ‘핵심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강소성 관광 전문가 팸투어’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전북의 지역성 및 창의성을 바탕으로 둔 전북 대표 상품개발이 필요하며, 주요사업으로는 ‘태권도 관광상품 개발’, ‘미식투어 상품 개발’, ‘청소년 수학여행객 유치’ 등을 대표 상품으로 육성해야 한다.

셋째, 2014년도는 전라북도·강소성 간 교류 20주년을 맞는 해로 양 지역간 상호발전적 협력과 교류 내실화를 다지는 원년(元年)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주요사업으로는 ‘교류 20주년 기념행사 추진’ 과 ‘교류 20주년 공동사업’ 을 구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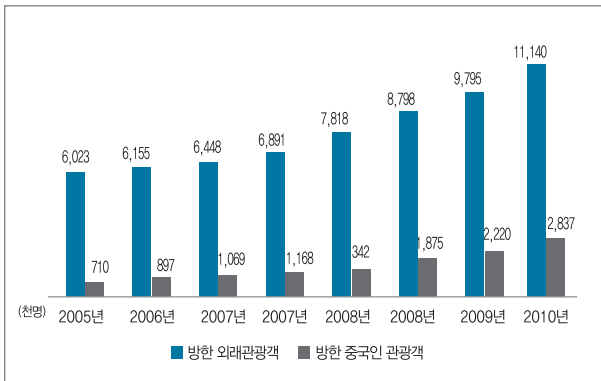


1. 중국 감소성 관광객 유치 필요하다!

1) 중국인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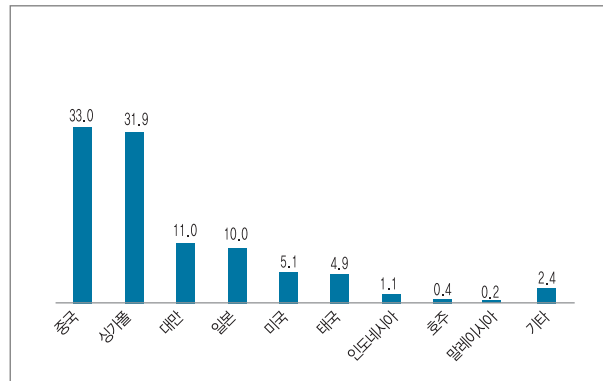
- 우리나라 외래 관광객 수는 1978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2012년 사상 최초로 1천만 명을 돌파함
- 중국은 경제의 급성장과 소비의 고급화, 개방정책 확대로 인해 해외 출국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WTO)는 2011년 7,025만 명, 2020년 약 1억 명으로 추정됨
-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2005년 71만명, 2009년 134만명, 2012년 283만명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외래관광객 중 중국인이 2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함
- 전라북도 방문 외래관광객은 2009년 118천명, 2010년 124천명, 2011년 128천명, 2012년 171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11년도 전라북도를 방문한 단체 외래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국적별 현황을 보면, 중국(33.0%) > 싱가포르(31.9%) > 대만(11.0%) > 일본(10.0%) 등의 순

〈그림 1〉 연도별 외래관광객 방한 추이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출입국 관광통계

〈그림 2〉전북 방문 외국인 관광객 국적(10,920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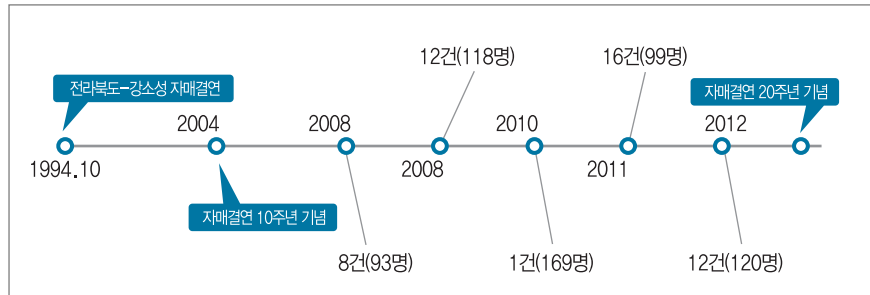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2) 지자체별 중국과의 관광교류의 중요성 확대

- 전라북도와 감소성은 1994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정치, 경제, 문화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며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문화, 언론, 스포츠, 청소년, 공무원 인적교류 등 총 61회, 599명이 교류를 통해 각국을 방문하였고 인적교류(28회), 경제교류(11회), 문화교류(6회)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그림 3〉 최근 5년간 전라북도-강소성 교류 현황



- 현재 타 지자체는 순수 교류협력에서 관광·투자 유치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전라북도 또한 타 지자체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서울특별시 : 1993년 베이징시 자매결연, 2013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 부산광역시 : 1993년 상하이시 자매결연, 2013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공연
 - 대구광역시 : 1993년 칭다오시 자매결연, 2013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 인천광역시 : 1993년 텐진시 자매결연, 2013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선언문 채택
- 특히 2014년은 전라북도·강소성 간 교류 2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 보다 적극적인 관광교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이는 상소성 시민들을 전라북도로 유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강소성(江蘇省)은 중국의 동부 해안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
- 전체 면적은 102,600km²이며 중국 총 면적의 1.1%
- 2011년 인구는 78,990천명으로 중국 인구 1,347,350천명의 5.9% 차지하며 2002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0.8%의 꾸준한 증가 추세

2. 전라북도 관광에 대한 강소성 전문가 의견조사

1) 강소성 소재 여행사 관계자 의견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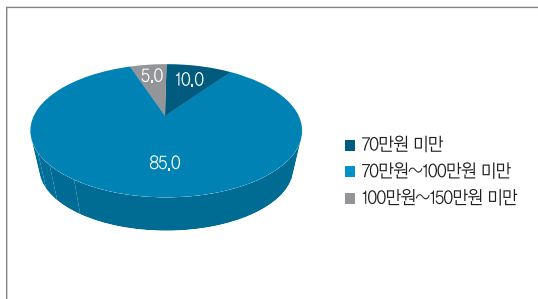
☒ 조사 개요

- 강소성에 소재하는 해외여행 상품 판매 상위 20위 여행사를 대상으로 강소성 시민들의 한국 및 전라북도 여행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함
- 조사기간은 2013년 5월 9일~5월 30일(약 20일간) 강소성사회과학원 협조를 통해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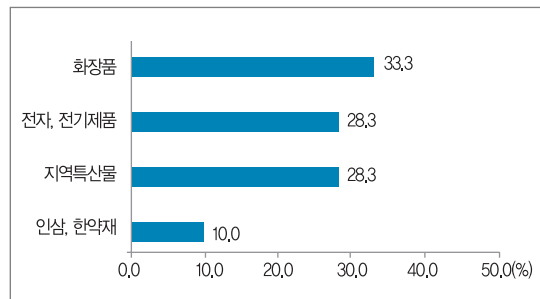
☒ 조사 결과

- 한국 여행 선택 요인으로 '여행 경비가 저렴하다는 점' 을 꼽았으며, 상품 가격은 '70만원~100만원 미만' 을 가장 선호함
- 선호하는 쇼핑 품목으로 '향수/화장품' 이 가장 높았으며, 관광 일정은 '3박 4일' 을 가장 선호함

〈그림 4〉 선호하는 한국 여행상품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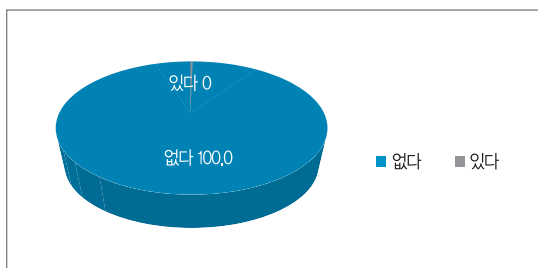


〈그림 5〉 선호하는 한국 쇼핑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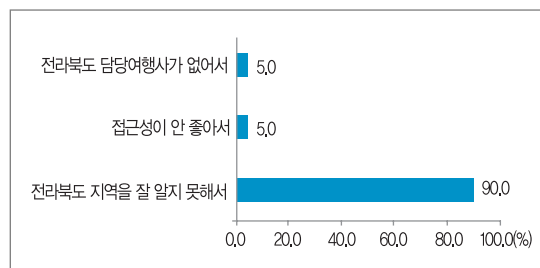


- 강소성 내 여행사 20곳 모두 전라북도 관광 상품을 판매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하지 않는 이유로는 '전라북도 지역을 잘 알지 못해서' 가 가장 높았고 '전라북도 담당 여행사가 없어서',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순으로 나타남

〈그림 6〉 전라북도 관광상품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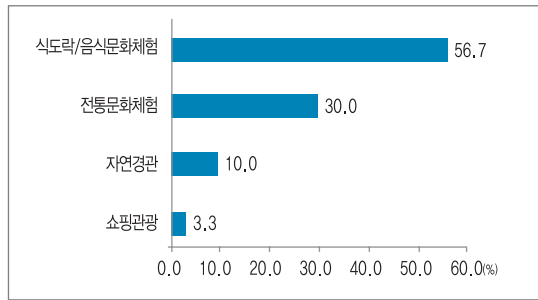


〈그림 7〉 전라북도 관광상품을 판매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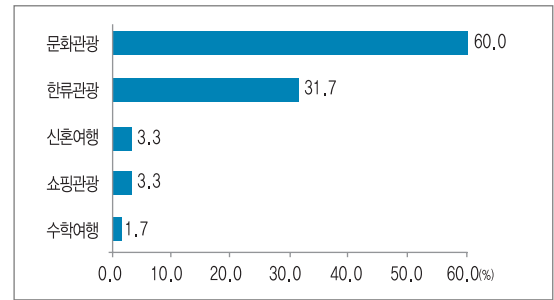


- 전라북도 관광 상품 판매 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는 ‘식도락/음식문화체험(56.7%)’ 이 가장 높았고 ‘전통 문화체험(30.0%)’, ‘자연경관(10.0%)’ 순으로 나타남
- 강소성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상품은 ‘문화관광(60.0%)’ 이 가장 높았고 ‘한류관광(31.7%)’, ‘쇼핑관광(3.3%)’ 순으로 나타남

〈그림 8〉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



〈그림 9〉 중점 개발 관광상품 분야



2) 강소성 관광 전문가 인터뷰 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본 조사는 2013년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소성사회과학원, 강소성 여유국, 남경시 여유국, 강소성 소재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실시함
- 조사내용은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마케팅,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 발굴, 교류확대 방안, 강소성 관광객 확대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에 대한 내용임

☒ 조사 결과

-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목적지는 서울·경기, 제주도가 대부분으로 전라북도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아 강소성 현지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함

“강소성내 전라북도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이 선결되어야 한다. 강소성 내 관광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조차 전라북도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다.”

- 전북을 대표하는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가 필요하며 ‘태권도’, ‘식도락 투어’, ‘한문화(K-Culture)체험’, ‘자연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신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이 필요함

“최근 강소성에서는 학교 수업과목으로 태권도를 지정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태권도의 정신 수련과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무주 태권도원 개원과 발맞추어 강소성 내 태권도 도장이나 학교 등을 상대로 태권도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

“양 지역간 교류의 핵심 콘텐츠로 수학여행은 적절한 아이템이라 생각된다. 수학여행은 강소성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 즉 교육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단, 해외로 보내는데 안전문제

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승인하지는 않는다.”

- 강소성 시민들의 선호 관광지는 서울시와 제주도 중심이므로 전라북도 단일 관광상품 구성뿐만 아니라 서울~전주~부산을 패키지화시킬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함
“전라북도 지역만을 가지고 상품화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지역과 연계한 상품개발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 2014년은 전라북도·강소성간 교류 20주년이 되는 해로 양 지역간 교류 촉진을 위한 원년(元年)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임
“양 지역 간 ‘20주년 기념의 해’ 행사의 필요성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며, 반드시 양 지역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사항으로 먼저 지자체 중심의 교류상품을 추진하고 이후 민간측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다.”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중국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높일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
“강소성과 전라북도 여행사 간에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중국 강소성 여행사 입장에서는 전라북도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현지의 여행사와의 관계형성이 중요하다. 전라북도 여행사와의 교류를 통해 공동 상품을 개발하고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시사점

☒ 강소성 현지 홍보마케팅 강화 방안 마련

-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목적지는 서울·경기, 제주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미약하므로 향후 홍보마케팅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타 지자체와 연계된 여행상품 발굴

- 여행사 판매 상품 대부분은 서울과 제주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2박 3일, 4박 5일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 지역과 연계 가능한 상품을 개발하거나 전라북도 독자적인 여행 패키지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타 지자체에 비해 접근성 및 관광인프라 측면에서 열위에 있으므로 전라북도 핵심 매력물을 발굴하여 차별화된 상품개발이 필요함

☒ 한류를 활용한 신규 문화관광상품 개발

- 전라북도는 한문화(K-Culture)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 중임. 전북의 강점인 ‘음식’, ‘체험’,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신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이 필요함
- 전라북도 자연 경관은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낮음. 한옥마을 비빔밥체험, 한지 체험 등과 한

류를 활용한 상품 개발에 집중해야 효과적일 것임

☒ 대규모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 개선 및 확충 필요

- 전라북도 내 특1급 호텔은 1개소로 숙박 인프라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므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에 대한 개·보수 예산 확충 및 신규 민간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강소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향 설정

1) 홍보 마케팅 강화

- 강소성 내 전라북도 인지도 향상과 매력 있고 차별화된 관광브랜드 개발 방안 마련
- 선진화된 관광홍보 마케팅을 통해 홍보 효과의 극대화 및 전라북도 관광 인지도 향상을 제고
- 강소성 현지 TV관광프로그램 방영, 관광설명회, 여행사 초청 팸투어 실시 등 타깃별·매체별 홍보 마케팅 방안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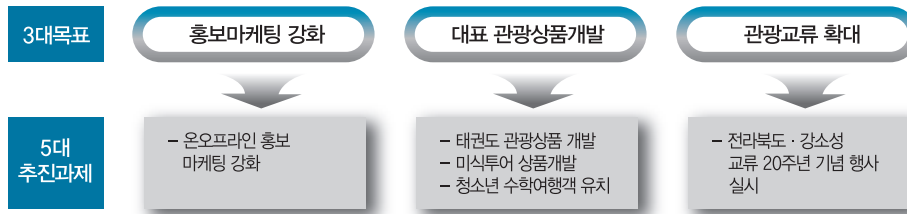
2) 대표 관광상품 개발

- 전북의 지역성 및 창의성에 바탕을 둔 특화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강소성 관광객 유치 확대 및 관광목적지 다변화를 추구
- 세계태권도의 교육·수련·연구의 중심이자 태권도의 정신과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장 '태권도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
- 방한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단순히 먹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오감을 통해 한식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음식관광상품 개발이 필요
- 중국내 수학여행 1위인 강소성 청소년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현장견학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3) 관광교류 확대

- 2014년은 전라북도와 강소성간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은 해로 양 지역 간 상호 발전적 협력과 상호 교류의 내실화를 위한 기념행사가 필요

- 전라북도 · 강소성간 정치 · 경제 · 문화 · 사회면 등에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상호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



〈그림 10〉 강소성 관광객 유치를 위한 3대 목표 및 5대 추진과제

4. 강소성 관광객 유치를 위한 5대 추진과제

1) 온 ·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강화

(1) 추진방향

- 중국 현지 포털 사이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관광 목적지로서 전라북도 홍보 마케팅을 추진
- 중국 강소성 현지 주요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전북 방문 매력을 홍보하는 광고 및 특집 프로그램들을 제작 방영하도록 유도
- 강소성 정부 여행담당자 및 여행 관계자에게 팸투어 실시를 통해 전라북도 관광 홍보 및 제반 여건에 대한 이해도 제고

(2) 추진방안

☒ 온라인 홍보마케팅 전개

-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시나닷컴' 과 중국판 트위터 '시나 웨이보' 를 신규 개설해 온라인상에서 전라북도 관광홍보 마케팅 전개
 - 시나닷컴(sina.com)에서 운영하는 시나 블로그(<http://blog.sina.com.cn/pridegyongbuk>)
 - 중국판 트위터 '시나 웨이보(이용자 수 약 5억명)(<http://e.weibo.com/prideGyeongBuk>)'
- 중국최대 검색사이트 여행카페 '바이두여행카페', 중국 최대 검색사이트의 한국여행카페인 '한국여행카페', 여행경험 교류카페인 '류마마여행카페', 각 나라별 여행공략카페인 '환쳐왕카페' 등 중국 대표 바이럴 홍보사이트에 전북관광 콘텐츠 포스팅 전개

☒ **방송매체를 통한 언론 홍보활동 강화**

- 강소성 내 영향력이 높은 방송사, 신문사, 라디오 등에 전라북도 ‘볼거리’, ‘먹거리’, ‘숙박’, ‘각종 문화행사’ 등을 홍보해 인지도 향상 도모
- 최근 전북도민일보와 신화일보(新華日報)는 지면교류 등 우호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양 지역간 홍보활동의 가교 역할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강소성 내 영향력이 높은 홍보 매체에 대한 전략 방안 강구
 - TV 매체 ‘강소방송국(江蘇電視台)’, 신문 매체 ‘신화일보(新華日報)’와 ‘양자만보(揚子晚報)’ 대상

☒ **여행사 초청 팸투어 실시**

- 전북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강소성 관광 전문가, 여행사, 언론매체 기자들을 중심으로 전북 관광 팸투어 실시
- 강소성 관광유관단체 팸투어를 제안하고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가 검토한 후, 팸투어 대상자를 선정하여 강소성 관광 관계자 팸투어 실시
 - 추진기관 :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 협조기관 : 한국관광공사 전북권 협력단, 전북도 내 14개 시·군

〈표 1〉 관광상품별 홍보마케팅 방안(안)

관광상품	타깃층	주요 구매의사결정권자	홍보 수단
수학여행 상품	초등학생, 중고생	부모	교육기관, 유관여행사
태권도 관광상품	프로 태권도인	매니저, 본인	태권도협회
	아마추어 태권도인	본인/소속 동호회 혹은 태권도 도장	태권도협회/체육교육기관
미식 투어	청년층 혹은 미혼 여성	부모, 본인	TV, 신문, 온라인 홍보
	가족 여행객	가족, 여성구성원	TV, 신문, 온라인 홍보

2) 태권도 관광상품 개발

(1) 추진방향

- 강소성내 태권도에 대한 인기가 높으며 현재 강소성 태권도 협회에 83개 가입(소속 2급 단체 회원 18개, 3급 단체회원 65개)중임
- 태권도라는 단일 소재로 구성되는 공간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단편적 체험이 아닌 수련-교육-오락-문화 연계형 프로그램 개발
- 태권도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관광요소 제안을 통해 연계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2) 추진방안

☒ **강소성 · 전라북도 태권도인 겨루기 및 품새 대회 개최**

- 강소성 및 전라북도 태권도인이 참가해 겨루기 및 품새, 단체전, 개인전 종목에서 연마한 기량을 선보이고 태권도인 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

- 강소성 태권도협회
 - 2007년 강소성에서는 태권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소성태권도체육선수팀의 주관단위인 소주시체육선수팀관리센터의 주도로 소주시에 강소성태권도협회를 설립함
 - 강소성 민정청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독립 법인자격을 갖춘 체육사단조직으로 중국태권도협회의 회원임
 - 현재 강소성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서 태권도 분회를 설립하고 있음

☒ 태권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 세계 태권도 수련인들의 최고 연수 · 교육 뿐 만 아니라 태권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 또한 동양철학, 청소년 인성 및 예절교육과 동 · 하계 레저스포츠 강습 및 지도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 교육

☒ 주변 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산악트레킹, 전통사찰, 향교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계한 문화체험형 상품과 스키, 골프, 래프팅, 서바이벌 등 레저 스포츠 체험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 하계의 경우 무주 구천동의 청정자연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동계의 경우 무주리조트와 연계를 통한 스키 프로그램 등 동 · 하계 레저스포츠 강습 및 지도, 민속공예품 제작 체험, 반디별 천문과학관 연계 상품 개발

☒ 도내 태권도 축제와 연계 상품 개발

- 강소성 태권도인들의 대규모 모객을 위해 전북 도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와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를 연계한 상품 개발 추진

- 제7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 기간 : 2013.7.12~17, / 규모/국내 · 외 태권도 인 2,500명, /주최: 전라북도,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 /장소: 전라북도, 무주군 일원
- 제5회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
 - 기간 : 2013.7.22~28, /규모 : 전 세계 34개국 200명, /주최: 태권도진흥재단(TPF)과 세계태권도연맹(WTF), /장소: 무주군 태권도원 T1 경기장

3) 미식 투어 상품 개발

(1) 추진방향

- 한식 세계화를 선도하는 전주비빔밥을 중심으로 부침개, 떡 만들기 등 한국의 잔치음식 강습 및 직접 조리하고 시식해보는 체험을 통해 전통 음식에 접할 기회 제공

- 유네스코 음식문화창의 도시로 선정된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순창 고추장 마을, 임실치즈 마을 등 전북의 특화된 다양한 음식관광자원 연계 상품 개발

(2) 추진방안

- ☒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통요리 강습 프로그램
- 전주비빔밥, 김치, 부침개 등 지명도가 높은 전통음식의 재료 선정 및 구입부터 손질, 조리, 시식까지 할 수 있는 강습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의 음식문화 이해 도모
- ☒ 전북 맛집 투어 코스 개발
- 전라북도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당일코스, 1박 2일, 2박 3일 코스 등 미식 체험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체류형의 경우 농촌민박과 연계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도모
- ☒ 중국인이 선정한 전북의 맛집 발굴
- 전북 방문 중국인을 대상으로 맛집, 지역음식점의 평가, 설문조사 및 만족도 평가 등의 분석을 통해 경쟁력 있는 맛집 및 음식을 선정하여 홍보 마케팅 도구로 활용

4) 청소년 수학여행단 유치

(1) 추진방향

- 강소성 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통해 강소성과의 인적/문화적 네트워크 강화
- 전라북도의 문화·경제·산업 등의 현장 견학 및 체험을 통해 한국 문화 이해 제고 및 국제마인드 함양에 기여

(2) 추진방안

- ☒ 문화체험코스
 - 국내·외 공연활동을 펼치는 임실 필봉농악과 전통음악인 판소리에 근간을 두고 세계음악과 융합을 시도하는 전주소리축제 등을 연계하는 문화체험 관광상품 개발
예시) 임실 필봉농악~템플스테이~전주소리체험 등을 연계
- ☒ 레저체험코스
 - 여름철 서해안에서의 해양관광과 계곡을 활용한 래프팅, 겨울철 무주 스키장, 장수 승마체험장 등 청소년들이 다양한 레저를 체험할 수 있는 상품 개발
예시) 완주 에코어드벤처~무주 스키(래프팅)~장수 승마체험 등을 연계

☒ 생태체험코스

- 자연 생태 탐방코스로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연계한 도보길을 직접 걸으며 변산반도 해안 갯벌생태 관찰 및 체험 프로그램 구성

예시) 변산마실길~갯벌체험~지리산둘레길 등을 연계

☒ 지역축제 연계상품 개발

- 한국의 대표 농경문화인 ‘김제지평선축제’ 참여를 통해 한국 농경문화체험을 이해·학습의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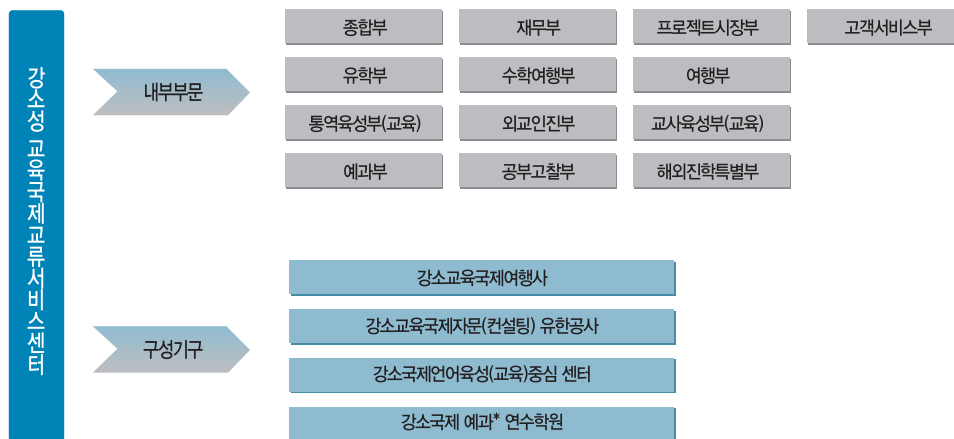
예시) 황금들녘 달구지여행~인간허수아비 퍼포먼스~남포 들녘마을이동~각종 체험

- 순창 장류와 임실 치즈 체험을 통해 한국 식 문화의 이해 증진

예시)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장류체험~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치즈마을 치즈만들기 체험

〈강소성 수학여행 추진기관 : 강소성 교육국제교류 서비스센터〉

- 강소성교육국제교류서비스센터는 1988년에 설립된 강소성 교육청 직속 기관으로 주요 업무는 해외유학, 해외 수학여행, 교사국제교육, 어학연수 등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을 전개함
- 매년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한 수학여행 4000명, 교사해외교육 2000명, 자비유학 800여명 등 15000여명 학생의 국제교류활동을 지원
- 1996년 수학여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만 여명(총 4만 여명의 절반수준)의 학생을 해외로 보냄
- 강소성은 해외수학여행 규모면에서 전국 1위이며 단일기관으로는 중국 최대 규모임



* 예과: 대학교에서 정식 입학생을 뽑기 위해 설립한 기구

5) 전라북도 · 강소성 교류 20주년 관광부문 공동사업 추진

(1) 추진방향

- 강소성과의 교류·협력 관계 개선 및 증대를 제고하기 위한 전라북도 대중국 교류협력기반의

체계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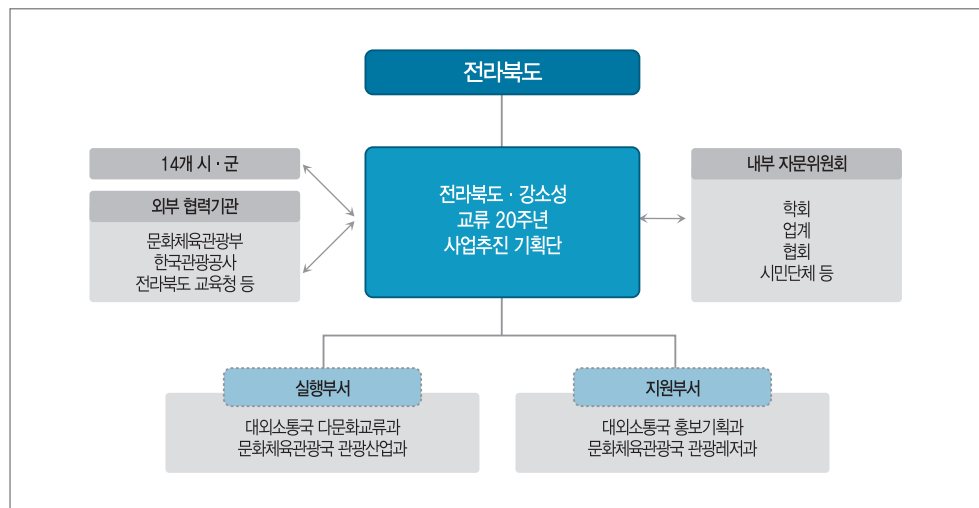
- 2014년은 전라북도와 강소성간 자매결연 20주년을 맞는 기념의 해로 양 지역간 상호 발전적 협력 모델 수립과 교류 활성화 촉진
- 국내·외 지자체별 교류 핵심이 일반 교류에서 관광교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2014년을 양 지역간 관광교류 원년(元年)으로 발전

(2) 추진방안

☒ 전라북도·강소성 교류 20주년 기념행사 추진

- 목적 : 전라북도·강소성간 상생 협력 모델을 실천하여 우호협력 및 미래 지향적 한·중 관계로 발전
- 주요행사 : 전라북도·강소성 상호 방문 추진, 한·상생포럼 개최, 각종 문화교류 확대, 관광교류 활성화, 동호회 중심 체육교류 행사 추진 등
- 전라북도·강소성 교류 20주년 기념행사 프로세스
 - 2013. 8 : 전라북도·강소성 교류 20주년 기념행사 의견 교환
 - 2013. 9 : 전라북도·강소성 교류 20주년 태스크포스(TF)팀 구성
 - 2013. 9~12 : 전라북도·강소성 교류 20주년 마스터플랜 수립
 - 2014. 1 : 전라북도·강소성 교류 20주년 선포식(강소성)
 - 2014. 3 : 전라북도·강소성 교류 20주년 선포식(전라북도)
 - 2014. 3~12 : 각종 문화교류 행사, 세미나, 포럼, 체육행사 등 개최
- 사업기간 : 2014년
- 주최/주관 : 전라북도, 강소성

〈그림 11〉 전라북도·강소성 교류 20주년 공동사업 추진 네트워크(안)



☒ **전라북도 · 강소성 교류 20주년 공동 사업(안)**

● **전라북도 · 강소성 공동 선포식**

- 2014년 1월 선포식 : 강소성 현지, 전라북도지사 방중
- 2014년 3월 선포식 : 전라북도, 강소성성장 방한
- 주요 내용 : 양 지역의 우호관계 발전 경위 및 향후 발전 모델 제시

● **문화교류의 확대**

- ‘강소성 문화주간’ 과 ‘전라북도 문화주간’ 을 지정하여 양 지역의 전통문화를 집중적으로 홍보
- 추진 시기 : 2014년 5월~6월(양 지역 일주일씩 개최)

● **한 · 중 상생포럼 개최**

- 경제, 통상, 관광, 문화, 산업, 체육 분야 등 다분야의 걸쳐 미래 지향적 상생 포럼 개최
- 양 지역 간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정하며 실효성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

● **동호회 중심 공동 체육행사 개최**

- 탁구 교류 : 탁구협회를 중심으로 각종 탁구 시합 개최(강소성 주관)
- 태권도 교류 : 태권도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각종 태권도 대회 개최(전라북도 주관)

〈표 2〉 강소성 관광교류 확대를 위한 전라북도 추진과제

추진과제	사업내용	추진주체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홍보마케팅 전개 • 방송매체를 통한 언론 홍보활동 강화 • 관광상품별 홍보마케팅 차별화 방안 • 여행사 초청 팸투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대외소통국 공보과 • 강소성 : 여유국 관광촉진처
태권도 관광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소성 · 전라북도 태권도인 겨루기 및 품새 대회 개최 • 태권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 주변 관광지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도내 태권도 축제와 연계 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 문화체육관광국 스포츠생활과, 관광산업과, 전라북도 태권도협회 • 강소성 : 여유국 관광촉진처, 강소성태권도협회
미식 투어 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대상으로 전통요리 강습 프로그램 • 전북 맛집 투어 코스 개발 • 중국인이 선정한 전북의 맛집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 강소성 : 여유국 관광촉진처
청소년 수학여행단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험코스, 레저체험코스, 생태체험코스 • 지역축제 연계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전라북도교육청 • 강소성 : 여유국 관광촉진처, 강소성교육국제교류서비스센터
전라북도 · 강소성 교류 20주년 공동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 강소성 교류 20주년 기념행사 추진 • 전라북도 · 강소성 교류 20주년 공동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 문화체육관광국 다문화교류과, 관광산업과 • 강소성 : 외사반공실, 여유국 관광촉진처



전북발전연구원

560-8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